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시행 1년 광주 주택가 돌아보니

라벨 안떼고 내용물 담긴 채 버려 다른 플라스틱과 섞어 버리기도 환경 개선·자원 재활용 '나몰라라' 자치구 단속·점검도 제대로 안돼 시민들 무관심...의식 개선 시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PET)병을 분리 배출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 25일부터 300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됐지만 아예 제도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지역민들 무관심까지 맞물리면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식 괴리도 심각한 형편이다.

투명 페트병은 식품용기와 의류용 섬유 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 자원인만큼,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정책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343세대 규모의 아파트 내 생활쓰레기 배출장의 경우 고철·플라스틱·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공간이 나눠져 있었지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포대에는 라벨이 떼이지 않거나 내용물이 담긴 투명 페트병이 적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은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고 내놓는 주민들이 많은데 배출장에 상주할 수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무관심



26일 오전에 광주시 동구 산수1동 재활용 동네마당 투명 페트병 수거포대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페트병이 가득 차 있다. (왼쪽)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

한 주민들이 무심코 던져놓으면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건 고스란히 경비원들이 챙겨야 하는 주요 업무가 됐다. 이 아파트 쓰레기 배출장에는 스티로폼 박스와 라벨이 붙은 투명 페트병, 종이박스, 기타 플라스틱류가 섞여 있는 등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도 불투명 페트병이 섞인 채 담겨 있는 등 제대로 정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 보였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도 미흡하다.

당장, 광주 5개 자치구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점검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단독·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된 데 따른 우려도 높다.

환경부와 광주시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기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홍보·감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만 확대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5~26일 광주지역 다가구주택 단지 등에 대한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되는 단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골목길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보관 돛 다른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25일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사실상 모든 쓰레기가 뒤섞여 쏟아지고 있다"며 "단독 주택들이 있



는 동네는 그야말로 주민 마음대로 담아서 내다버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재활용 동네마당',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권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 동구 산수1동 재활용 동네마당을 26일 찾아가보니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에는 다양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가득했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배출 의무화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투명 페트병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들이 혼합 배출되는 정도가 심한 수준인 단독주택의 경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총수 일가 운영 기업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 기소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 240억원 가량을 거래,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현의를 받는다.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과결했다. 올해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성탄절 전남 곳곳 화재

순천 야산 불 20시간만에 진화

성탄절 연휴 전남지역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께 순천시 서면 판교리 일대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 20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아 10ha(잠정)가 타거나 그을렸다. 진화대원들은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한 추운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부는 상태에서 불길을 잡기 어려웠다.

31보병사단 100여 명의 장병도 잔불제거를 위해 대민지원에 나섰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7시 20분께 목포시 상동 자동차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도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47분 만에 진화됐다.

검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쌓인 페타이어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남 24일 오전 담양군 장평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불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인근 마을회관에 자원봉사를 나온 소방관에 의해 초기 발견·진화돼 인명피해 없이 7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준위핵폐기장 안돼” 영광 주민 거센 반발

정부 방침 오늘 확정 예고에

“줄속 추진...철회하라” 촉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기존 원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27일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영광 한빛원전 지역민들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정부의 2차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원칙과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으로,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

하고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게 원전 소재 지역민들 반발을 불러오는 실정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농도가 g당 4조 베크렐에 이르고, 필수 냉각수조에서 10년을 보관하더라도 기준농도의 375만 베크렐에 달하는데도, 주민들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도 방사성폐기물이 쌓여만 가는데 처리 방안은 없고 관련 논의조차 없다"면서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장담할 수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민들에게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감당하라는 무책임하고 엄치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개월 아기 방치 사망’ 엄마 항소심 절반 감형

법원, 심신 미약 상태 판단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굶겨 숨겨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관련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아기 외할머니인 C씨에게는 징역 2

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수두 병증으로 인한 손발을 떠나는 진정 엄마의 말을 듣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둘째 아들에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이 치아가 썩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가 하면,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한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고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A씨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 없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1>상가매매(상무지구)</h1>	<h1>장성 토지(매매 분양)</h1>	<h1>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1>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p>062-382-5500</p>